

기혼여성의 배우자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

이 선 정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신 효 식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행·불행뿐 아니라 일생동안의 생활의 질, 자녀, 친족 나아가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일생의 가장 중대한 결정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배우자 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교제관련 변인에 따라 배우자 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며 이러한 변인들이 결혼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초혼이면서 결혼년수 5년 이하의 주부 276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으로 답하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P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백분율, Cronbach' α , 평균, 표준편차, t검증, ANOVA, Duncan의 다중비교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의 배우자 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17개의 배우자 선택요인 중 중간점수(3점)보다 높은 문항은 외적요인에서 건강상태(M=3.49), 직업(M=3.43), 가정환경(M=3.37), 학력(M=3.14) 순이었고 내적요인에서는 성격(M=4.27), 가치관(M=4.03), 대인관계의 원만성(M=3.91), 성취욕(M=3.71), 정서적 성숙(M=3.70), 자아분화도(M=3.63), 애정의 표현정도(M=3.35), 유머감각(M=3.24), 매력정도(M=3.13)의 순으로 9개 요인에서 모두 중간점수를 상회하였다.

즉, 배우자 선택시 고려도가 높은 요인은 외적요인 중에서는 건강상태이고 내적요인 중에서는 배우자의 성격으로 나타났다.

외적요인전체와 내적요인전체의 평균에서는 외적요인(M=3.02), 내적요인(M=3.36)으로 나타나 외적요인에 비해 내적요인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의 결혼만족도는 중간점수인 62.5보다 높은 91.75로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교제과정 변인에 따른 배우자 선택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배우자 선택요인의 차이를 보면 출생순위가 중간인 집단이 배우자의 출생순위를 덜 고려했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배우자의 가정환경, 정서적 성숙, 자아분화도, 가치관, 성격을 더 고려하였으며 출생순위가 장녀인 집단이 배우자의 자아분화도를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업이 사무직인 집단이 배우자의 가정환경을 더 많이 고려하였고 결혼전 자영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배우자의 자아분화도와 가치관을 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가족의 형태(핵가족, 확대가족)에 따라서는 배우자 선택의 어떠한 요인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적 변인에 따른 배우자선택요인의 경우, 성역할 태도가 중간인 집단이 배우자의 출생순위, 가정환경, 배우자의 정서적 성숙, 대인관계의 원만성, 성취욕을 더 많이 고려하였고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인 집단이 배우자의 가치관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아존중감이 중간인 집단이 배우자의 매력정도를 가장 많이 고려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배우자의 정서적 성숙, 성취욕, 자아분화도, 성격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자아분화도가 높은 집단이 배우자 선택시 배우자의 자아분화도, 가치관, 성격과 같은 내적요인을 더 많이 고려하였다.

교제과정 변인에 따른 배우자선택요인의 차이는 교제시작 연령이 31세 이상으로 높은 집단이 배우자의 연령과 학력, 직업을 더 고려하고 맞선을 통해서 알게 된 집단, 교제기간이 6개월 이하인 집단이 학력을, 교제기간이 7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집단이 직업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달 평균 교제빈도가 5회 이하로 낮은 집단이 학력을 더 많이 고려하였다. 배우자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한 후 결정한 집단이 연령과 학력, 직업, 건강상태를 더 많이 고려했고 부모님의 소개후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결정한 집단이 배우자의 외모를 더 고려했으며, 자신의 선택 후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 결정하는 경우가 배우자의 매력정도, 대인관계의 원만성, 유머감각을 더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만남 후 3년 이상 4년 미만의 시기에 결혼을 결정한 집단에서 배우자의 외모를 더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교제시작 시기가 31세 이상인 집단에서 배우자의 매력정도를 덜 고려하며 21세-25세에서 교제를 시작한 집단이 배우자의 유머감각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유형 중 직장에서 알게 된 경우가 배우자의 성취욕을 더 고려했고 한 달 평균 교제빈도가

21-25회인 집단이 자아분화도를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교제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결혼년수가 적은 집단, 자녀수가 적은 집단, 주부의 직업이 없는 집단, 자아분화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보인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교제과정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배우자 선택요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외적요인에서는 배우자의 건강상태를 많이 고려한 집단이, 내적요인에서는 배우자의 매력, 정서적 성숙, 대인관계의 원만성, 성취욕, 자아분화도, 가치관, 성격을 많이 고려한 집단이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내적요인을 더 고려한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다섯째,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아분화가 잘 된 주부일수록, 배우자 성격의 고려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결혼만족도를 38%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결혼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는 배우자선택시 외적 조건에 치중하기보다는 성격과 같은 내적요인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